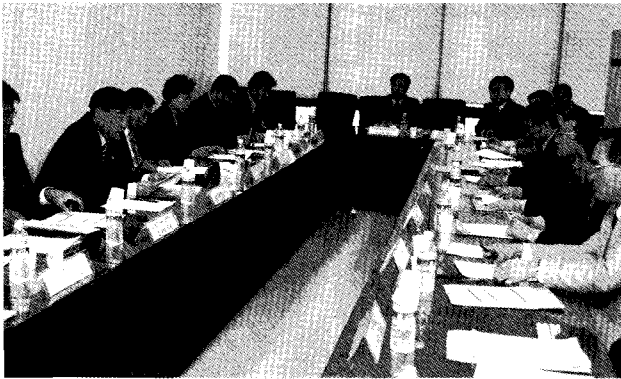


골판지포장 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 ①

제공 : 조합 기획관리팀



지난 5월 4일 산업자원부에서는 골판지포장업계의 수급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개최된 이날회의는 산업자원부장관(이희범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골판지원지업계, 골판지포장업계, 지함업계의 단체 및 주요기업 대표 등 총 22여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1월부터 급등한 골판지원지 가격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료 폐지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각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산자부 이희범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초에 발생한 원자재난과 가격인상 등은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여러 부분에서 차츰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골판지포장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함조합 정용규이사장은 『원재료의 급작스런 인상은 지함업계 경영난을 부추길 뿐아니라, 가공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며 말하고,

『골판지 가격 인상과 골판지포장업계의 상자가격 인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골판지포장업계의 입장을 밝힌 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골판지 가격을 요소별로 분석해 보면 원지 78.0%, 재조경비 5.0%, 노무비 8.0%, 운송비 5.2%, 기타 3.8%로 가공비가 과다책정 되었다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 경영개선을 통해 기업비용과 원지 수율향상 등을 통해 원가절감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제지업계는 폐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5월중으로 EOCC를 약 10만톤 수입할 예정으로 조만간 수급안정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슬러지 처리를 위해 소각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규제가 매우 심하여 심각한 경영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슬러지 소각은 사회적 비용임을 감안하여 환경시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명단 (22인)

정부측

-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생활산업국 정준석 국장, 생물화학산업과 조기성 과장, 김광석 사무관

골판지원지업계

- 조합 정태화 이사장, 정구성 전무, 연합회 이상문 이사장, 조일제지 이삼섭 사장, 화승제지 박영환 사장, 아세아제지 이창무 사장, 신대양제지 권혁홍 사장

골판지포장업계

- 조합 김진무 전무이사, 조용민 부장, 산성파엔씨 김진구 사장, 한덕편지 정근원 상무

지함업계

- 조합 정용규 이사장, 강종찬 전무, 정봉기 팀장, 영진포장 이치영 사장, 삼공제지 하옥자 사장, 영화수출포장 김영수 사장